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효능감이 기혼남녀의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 영 신¹⁾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안 귀 옥²⁾

화온법률사무소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효능감이 기혼남녀의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82명(기혼 남자 71명, 기혼 여자 211명)의 성인이었다. 경로분석 결과, 남자 집단의 경우에 부부갈등은 이혼의도에 대해 정적인 영향이 크고, 부부관계효능감에 대해 부적인 영향이 컸다. 부부관계효능감은 이혼의도에 대해 부적인 영향이 있었다. 반면에 부모역할은 이혼의도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이 없었다. 여자 집단의 경우에, 남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부부갈등이 이혼의도나 부부관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부부관계효능감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남자 집단과 달리, 부모역할이 이혼의도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남자들은 여자들 모두,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고, 낮아진 부부관계효능감이 이혼의도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이혼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효능감, 이혼의도

* 이 연구는 2012년도 인하대학교 교수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 yspark@inha.ac.kr)

2) 법률사무소 화온, 변호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성인들에게 미래에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을 때, 행복한 가정 생활이 가장 높은 비중(37.4%)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가정생활은 가정의 화목에 의해 가장 대표되었으며, 이외에 자녀의 성공, 자녀의 교육적 성취,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 중요하게 포함되었다(김의철, 박영신, 김경자, 2011). 이와같이 가정화목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심리는 청소년, 성인, 노인과 같은 모든 세대 집단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성인들이 꿈꾸는 목표, 미래 모습에 대한 희망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바로 현실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어쩌면 인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갈망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갖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의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염원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현재 이루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염원하고 있는 가정의 화목함과 일치하며 실제로 화목을 유지하고 누리는 가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한국 사람들의 염원이나 이상과, 한국 가정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표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농경사회에서 공업화사회, 산업화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수십년 동안, 화목한 가정에 대한 목표가 실제로는 환상처럼 깨어지고, 우리 사회 고유의 전통적 가족가치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이 증가되었다.

연도별 이혼건수(조이혼률)에 대한 40년간의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이 크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0년에 11,615건(0.4)이었는데, 1980년 23,662건(0.6), 1990년 45,694건(1.1), 2000년 119,455건(2.5), 2010년 116,858건(2.3)으로서, 2010년에는 인구 1,000명당 2.3명이 이혼을 하였다(통계청, 2010). 인구 1,000명당 유배우 이혼율은 5.1건으로서, 결혼한 부부 100쌍 당 1쌍은 이혼을 하는 상태이다(통계청, 2010.4.21).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초혼 비율의 감소와도 관련되어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254,600건으로 전체 혼인의 78.1%에 불과하고,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가 39,100건으로 전체 혼인의 12.0%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11.4.19).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혼현상이 단순히 부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체된 가정환경은 자녀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때로는 청소년 일탈로 연결되어 결국 개인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친부모인 경우는 85.0% 밖에 안 되고, 편부 3.8%, 편모 5.0%, 계부 1.3%, 계부모 5.0%로 나타났다(정순택, 2011).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친부모 여부를 비교한 결과도, 일반 청

소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97.3%)이 친부모인 반면에,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는 10명 중 8명 정도만 친부모(81.0%)이고 나머지는 편부모나 계부모였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가족해체관련 24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족해체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은 이혼 및 별거(18)가 가장 많았고, 구조적으로 가족이나 이미 가족기능이 상실된 가정(8), 사망(5), 실직(3), 가출(2)로 나타났다(장화순, 방은령, 2007). 이와같이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이혼이나 별거가 가장 대표적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부부갈등으로 인한 별거나 이혼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최근의 통계는 40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6배 정도 이혼율이 증가했음을 밝히고 있다(통계청, 2010). 가족해체는 단순히 개인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여파가 크고, 청소년 일탈행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해체현상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이혼과 관련된 성인 부부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혼과 관련하여, 부부들의 심리적 과정과 역동에 대한 정교한 이해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로서 가정의 건전하고 튼튼한 뿌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동안 이혼과 관련된 심리적 측면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누적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주제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갈등을 겪는 부부의 심리적 특징이나 이혼과 관련된 심리 역동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김진숙과 권석만(2010)은 갈등이 악화되어 별거 중인 부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별거 부부들은 부정적 부부사건의 개수가 많았고, 부부신념이 불일치하였으며, 부정적인 부부지각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부감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수지(2009)는 부부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부부관계에서 심리적 자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부부 갈등이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한 심리사회적 발달적 이해(이종숙, 1998),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치료적 접근방법(채규만, 1998), 이혼 후 재혼가정의 부모-자녀적응(한경혜, 1998)과 같이,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경우들이다. 또한 이혼단계는 아니지만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임정하와 윤정진(2010)은 1990년대에서 2009년까지 국내학술지 논문 90편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바 있다. 국내 연구 동향을 보면, 평가도구는 아동보고식이 가장 많았고, 내용 측면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특히 내적 외적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이혼위기 부부들 또는 이혼 이후의 심리적 갈등을 치유하고 안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으로 도와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있다. 이혼 전 위기부부 상담을 위한 단기 상담프로그램(김만권, 오진미, 2006; 박성주, 박재황, 2011) 등 구체적인 상담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들(박성주, 박재황, 2011)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세 유형 중에 이 연구는 위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성인의 부부갈등이나 이혼에 관련된 심리적 역동을 규명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물론 청소년 발달의 측면에서 자녀가 받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인 부부들의 심리적 역동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성인 부부들이 이혼한 뒤에 그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으므로 어떻게 심리치료 해 나갈 것인가를 분석하기 이전에, 성인 부부들의 이혼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순서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한편, 많은 심리치료상담소에서 성인 부부에 대한 상담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상담이 보다 전문성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담 기법의 적용과 관련된 기술적 차원만이 아니라, 상담의 기반이 되는 부부 심리의 역동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부부관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부부갈등이나 이혼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성인 부부가 이혼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더욱 정교하게 밝히는 연구들이 누적되어질 필요가 있다. 성인의 발달과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부부의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부부간의 갈등적인 관계가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 인식은 이혼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불어 규명함으로써,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적 작용들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리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매개변인으로서 작용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효능감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검증을 남자와 여자집단 각각별로 시도함으로써, 이혼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심리적인 공통의 메커니즘을 경험하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혼 결정과정에서 부부갈등과 부모역할 인식

친밀한 부부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부부갈등이 있는 부부가 이혼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부부갈등이 이혼에 대한 생각을 촉발시키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혼의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부부갈등 그 자체

만이 아니라 갈등 속에 있는 부부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그러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인식에 주목한다.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가도 자녀를 둔 부부가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와 관련된 측면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 문제가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는 장애요인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이혼의 파국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는 부부에게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자녀문제가 이혼 고려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던 보호요인이 되던 간에,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에게 자녀문제가 중요한 변인인 것은, 특히 한국인에게 더욱 강력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혈연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강한 유대(박영신, 김의철, 2004)를 고려해 볼 때,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녀문제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전 위기부부 상담을 위한 상담모형(김만권, 오진미, 2006)의 한 예를 들어 보면, 이혼 결정 이전에 당사자만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이혼 및 별거와 관련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해 보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 이혼 후 자녀문제에 대한 대책 세우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담모형을 통해서도 부부의 이혼이 단지 부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더불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최상진, 김은미와 차영란(2006)은 한국에서 많은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이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와 관련된 것임을 지적한다.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권 문제가 법적으로는 잘 정리 되었어도, 자녀의 교육과 인성발달문제, 자녀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 등이 이혼 실천의 저지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가 이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최상진, 김은미와 차영란(2006)은 지적하였다. 한국의 부부는 전통적으로 부부 일체 및 상호의존적 부부관을 갖고 있고, 더불어 부모적 부부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풍토는, 정당한 이혼사유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저지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유정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과 김수리(2006)가 이혼을 경험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혼을 망설임 이유를 분석한 바 있다. 질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전형적인 이유로 부각되었고, 이외에도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가치관, 사회인식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이지만 이혼을 망설임 이유로 포함되었다. 이혼하기 전에 자녀에 대한 걱정의 표현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았다: ‘내가 낳은 자식만은 결손가정의 대열에 끼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나쁜 조건이 나에게 닥쳐어도 내 자식만 큼은---’(사례 1), ‘똑똑한 애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관공직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혼도 장 선불리 쓰기가 싫더라구요. 부모 때문에 걸림돌이 될까봐, ---'(사례 2).

이와같이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은, 한국의 부부들이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한 저지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즉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이 비중있게 고려되고,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의도를 저지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3. 부모역할 인식과 이혼 결정과정에서의 성차

부모역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부모역할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임춘희(2011)는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가족의 부모들이 지각한 강점으로, 가정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지적한 바 있다. 남자 경우에는 경제적 부양에 대한 책임, 여자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가족에 대한 헌신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lson과 DeFrain(2006)은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응집성을 지적하고, 그러한 응집성의 한 차원으로 헌신을 포함한 바 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 외에도 부모역할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김은정, 김유진, 김영아, 문수종과 오경자(2009)는 부모역할행동의 긍정적 차원으로 공감적인 행동, 수용적 존중, 합리적 권위행동을 포함하

고, 부정적 차원으로 강압과 완벽주의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바 있다. 최혜경과 안정신(1999)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역할감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여기에서 부모역할감은 자녀와 관련된 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역할감은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받았다.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성차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과 박연정(2008)이 대학생を対象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부모역할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역할인식이 더 강하였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지각은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남자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의 주책임은 여자에게 있다는 사회전반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덕웅과 김금미(2003)의 연구에서도 자녀부양 인식에서의 성차가 시사되었다.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치를 제시하고 한국 사회, 한국문화, 한국인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을 때, 교육열이 1위(남 6.27, 여 6.33), 자녀교육이 2위(남 6.05, 여 6.09), 자식사랑이 3위(남 5.95, 여 6.01), 자녀보호가 4위(남 5.91, 여 5.96)인 점에서 남녀가 일치하였다. 순위는 약간 달랐으나 20위 안에 포함된 가치들로서, 남자는 5위는 혈육의식(5.73)이었고, 여자는 혈육의식(5.65)이 6위였다. 여자는 5위가 부모의 희생(5.69)이었는데, 남자는 부모의 희생이 7위(5.64)로서, 약간 순위가 달랐다. 그런데 여자

는 14위로 자녀부양(5.39)이 지적되었는데, 남자의 경우에 20위 안에 포함된 가치로 자녀부양이 포함되지 않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최상위의 가치들이 모두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남녀가 일치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자녀부양에 관한 가치 인식이 훨씬 강하다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나종혜(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역할 인식과 수행에서의 성차를 밝히고 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로서 책임감을 더 높게 인지하고, 실제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부모역할이나 자녀부양 외에, 이혼결정과 관련하여서도 남자와 여자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미,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과 김수리(2006)가 이혼을 망설임 이유를 질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말한 두 사례는 모두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결정 과정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 결정과정에서 성별 차이의 가능성은 한경혜, 김주현과 강혜원(2004)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혼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혼을 결정할 당시 여러 장애요인 중에 '자식 때문에'라는 요인에서 성차가 있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자식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이경성(2001)의 연구 결과도 이혼 과정에서의 성차를 보여준다. 여자 경우에 이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으로 가정에 대한 의무 및 책임이 포함되

었다. 반면에 남자 경우에는 이러한 변인이 의미있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정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더욱 절박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부부관계와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실제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심리특성으로, Bandura(1997)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폭넓게 검증되어 왔다(박영신, 김의철, 2011). 이와같은 맥락에서 자기효능감이 다양한 변인들과 결혼만족도 및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밝혀져 왔다(박영신, 김의철,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과정에서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효능감의 매개효과도 밝혀진 바 있다(한혜영, 현명호, 2006). 즉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은 사람은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효능감이 낮아 결혼불만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갈등해결효능감의 측정은 Bradbury(1989)가 제작한 결혼효능감 검사(MEMI Marital Efficacy Measure)를 사용하였다.

장수지(2010)는 성역할정체감이 부부관계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한 바 있다. 일본인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적 여성성은 부부관계효능감 수준을 낮추었고,

부부관계효능감은 부부관계 적응에 대해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부관계효능감이 낮을수록 부부관계에서의 적응수준이 낮아졌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의미있는 중개역할을 하였다. 독립변인은 장수지(2010)의 연구에서와 달랐으나,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은 정적인 경계수를 갖는 점이 동일하였다.

한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신과 안귀옥(2009)이 여자들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6개 부부갈등의 하위변인들이 모두, 자기효능감과 높은 부적 상관을,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과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부부의 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을 시사한다.

김은정, 김유진, 김영아, 문수종과 오경자(2009)는 긍정적인 부모역할행동과 부정적인 부모역할행동이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양육효능감을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수행능력, 양육 상황에 대한 통제감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생아의 어머니에서 초등학교생의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부모양육효능감은 공감이나 존중과 같은 부모역할행동에 의해 증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부부갈등이나, 부모역할행동 등이 부부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효능감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낮은 부부관계효능감은 이혼의도를 촉진하는 변인으로 의미있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부관계효능감이 낮으면 부부간에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확산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낮은 결혼만족으로 인한 이혼의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유추된다.

5.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부부갈등은 이혼의도에 직접적인 영향과, 부부관계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부모역할은 이혼의도에 직접적인 영향과,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부부갈등과 부모역할이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집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갈등은 이혼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이 있고, 동시에 부부관계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은 박영신과 안귀옥(2009)의 연구 결과에 토대한다. 즉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여자들은 자기효능감이 낮으며, 이혼에 대한 의도는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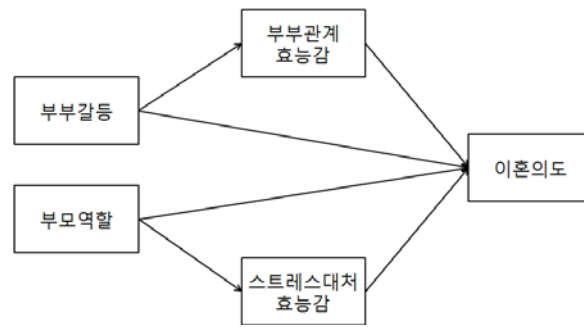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계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에서는 박영신과 안귀옥(2009)의 연구에서 밝혀진 부부갈등과 이혼의도의 상관, 부부갈등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 나아가, 부부갈등과 이혼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부부관계효능감의 매개적 작용에도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부부관계효능감은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과 이혼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경로가 구성되었다. 즉 부부간에 갈등이 심할수록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지며, 동시에 부부갈등은 부부관계효능감을 감소시키고, 낮아진 부부관계효능감은 이혼에 대한 의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검증되어 왔다(박영신, 김의철, 2008; 장수지, 2010; 한혜영, 현명호, 2006).

부부갈등이 이혼의도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패턴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은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역할은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이혼의도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 즉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할수록 이혼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질 것이며, 이러한 부모역할인식이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높여서, 높아진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이혼에 대한 의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한국인 부부관계의 사회문화적 담론은 부모적 부부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강한 유대관계가 이혼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최상진, 김은미와 차영란(2006)이 지적한 바 있다. 부모로서의 역할인식은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은정, 김유진, 김영아, 문수중, 오경자, 2009). 이 연구에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성인의 이혼의도 및 자기효능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역할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경혜, 김주현과 강혜원(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한 성인들

에게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식 때문에 이혼결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경성(2001)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가 남자집단에서는 이혼 계획과정에 의미있는 예언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여자집단에서는 의미있는 영향이 있는 결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갈등이 높으면 이혼의도가 증가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인식은 이혼의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부부갈등은 부부관계효능감을 낮추고,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높이지만, 어쨌든 두 효능감 변인들은 이혼의도에 대해 부적인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부부관계효능감이든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감소될 것으로 연구모형이 구성되었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표집대상은 I광역시에 위치한 H법률사무소에서 이혼을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혼관련 상담을 하려고 방문한 성인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여성 쉼터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피신생활을 하면서 H법률사무소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여성들도 부분적으로 포함

되었다. 또한 H법률사무소 부설 H가족상담소에서 이혼의 법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부부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내담자들도 표집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총 304명이 표집되었는데 기혼 남자가 76명, 기혼 여자가 228명이었다.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22개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분석대상은 282명으로서 남자 71명, 여자 211명이었다.

남자 집단의 연령은 30세에서 54세 사이로 분포하였으며, 평균 42.49세, 최빈치 45세, 중앙치 43세였다. 여자 집단의 연령 분포는 30세에서 58세였고, 평균 43.05세, 최빈치 39세, 중앙치 43세였다. 분석대상 전체의 연령 평균은 42.91세, 표준편차 6.67이었다.

학력은 남자 경우에, 중졸(2.8%), 고졸(15.5%), 대졸(67.6%), 대학원 졸(14.1%)이었고, 여자는 초졸(2.9%), 중졸(6.2%), 고졸(43.3%), 대졸(44.3%), 대학원 졸(3.3%)이었다. 남자는 대졸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여자는 고졸과 대졸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직업은 남자 경우에, 무직(1.4%), 노동생산직(16.9%), 판매서비스직(14.1%), 사무관리직(40.8%), 공무원(14.1%), 기업체고용주(8.5%), 고급관리직, 5급 공무원 이상(4.2%)으로 분포하였다. 여자는 전업주부(39.9%), 노동생산직(9.1%), 판매서비스직(21.2%), 사무관리직(17.7%), 공무원(14.1%), 기업체고용주(4.5%), 고급관리직, 5급 공무원 이상(3.5%)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남자 집단은 사무관리직이, 여자 집단은 전업주부가, 10명 중 4명 정도로 가장 많았다.

분석대상의 가정 월수입은 남자 집단 평균

4,308,700원이었으며, 최빈치는 300만원이었다. 여자 집단은 평균 3,899,200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었으나, 최빈치는 동일하게 300만원이었다.

사회계층에 대해, 남자 집단은 극빈층(2.8%), 하류층(22.5%), 중산층(73.2%), 상류층(1.4%)이라고 응답하였다. 여자 집단도 남자 집단과 큰 차이는 없었다(극빈층 6.3%, 하류층 24.6%, 중산층 66.7%, 상류층 1.9%, 최상류층 0.5%). 그러므로 두 집단 모두 중산층이라는 인식을 2/3 이상이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하류층이 1/5 가까이 됨으로써, 비슷한 사회계층인식을 하였다.

분석대상자의 반에 가까운 수가 맞벌이 부부였으며(남자 43.5%, 여자 42.0%), 결혼생활기간은 12년~16년(남자 152.49개월, 여자 186.77개월)이었다. 분석대상자의 자녀 수는 2명인 경우가 약 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명, 3명의 순서였다 (없음 8.3%, 1명 23.8%, 2명 49.1%, 3명 14.8%, 4명 2.9%, 5명 1.1%).

2.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배경정보와 5개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배경정보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수입, 사회계층, 맞벌이 여부, 결혼생활 기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배경정보 외에 측정변인의 문항 수와 문항 예 및 Cronbach α 신뢰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갈등 척도는 박영신과 안귀옥(2009)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 제작하였다. 부부갈등 척도의 제작을 위해, 수 십년 동안 법률사무소에 이혼상담을 의뢰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이혼상담을 한 부부들의 부부갈등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는 이유로 매우 빈번히 나타나는 갈등의 요소들을 먼저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본 결과, 남자들이 지적하는 부부갈등 이유가 72가지, 여자들이 지적하는 부부갈등 이유 116가지가 부각되었다. 이들 갈등내용들을 문항으로 하여, 이 연구의 분석대상들에게 갈등정도를 모두 5점 척도(① 전혀 아니다~

표 1. 측정변인의 신뢰도

변인	문항 수	문항 예	신뢰도		
			남자	여자	전체
부부갈등	11	남자 집단: 끊임없는 잔소리를 견디기 어렵다 여자 집단: 싸우다가 말이 막히면 주먹으로 해결하려 한다	.96	-	-
부모역할	10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95	.90	.92
부부관계 효능감	12	의견차이 때문에 배우자와 싸우지 않도록 당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92	.90	.90
스트레스대처 효능감	6	불쾌한 경험 후에, 당신이 해야 되는 일에 얼마나 잘 집중할 수 있습니까?	.87	.84	.86
이혼의도	12	더 발전가능성이 없는 부부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해야겠다.	.97	.97	.97

⑤ 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갈등내용들 각각에 대해 문항-전체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을 구하였다. 그 값이 .80 이상되는 문항을 남자와 여자집단에서 선별하였는데, 각각 11개였다. 따라서 이들 11개 문항을 각각 남자 및 여자의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부갈등 변인에서 높은 값을 나타낼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부부갈등 변인의 신뢰도는 남자와 여자 집단 각각 $\alpha = .96$ 이었으며,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역할 척도는 이 연구에서 제작하였으며,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답지는 5점 척도(① 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값이 클수록 부모로서 도리를 중요시 여기고, 자녀에 대해 강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 = .90 \sim .95$ 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혼남녀의 이혼의도와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관계 및 부모역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관계효능감 및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의 두 측면에 한정해서 자기효능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부부관계효능감은 Bandura(2000)의 가족효능감 질문지에서 부부관계효능감을 번역한 것이다. 김의철과 박영신(2001)이 번역하여 사용한 12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부관계효능감은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부부간에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신

념을 갖고 있는지와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답지는 5점 척도(① 전혀 잘할수 없다~⑤ 매우 잘할수 있다)로 구성되었으며, 값이 높을수록 부부관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부관계효능감의 신뢰도는 $\alpha = .90 \sim .92$ 로 매우 양호했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였다. 4문항은 Bandura(1995)의 자기효능감 어머니용 질문지에서 스트레스대처효능감 변인을 번역한 것이고, 나머지 2문항은 연구자가 제작한 것이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여 얼마나 잘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와 관련된 효능감을 측정한다.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답지는 부부관계효능감과 동일한 5점 척도였다. 여기에서 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높다는 뜻이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의 신뢰도는 $\alpha = .84 \sim .87$ 로 다른 변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양호하였다.

이혼의도 척도는 이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혼을 원하고 실천하려는 계획까지도 포함한다. 이혼의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1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박영신과 안귀옥(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 제작하였다. 답지는 5점 척도(① 전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였으며, 값이 클수록 이혼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는 남자와 여자 집단 모두 $\alpha = .97$ 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실시 및 분석방법

제작된 질문지는 법률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법률사무소 부설 가족상담소에서 부부갈등 때문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의 실시는 이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H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하거나, H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및 변호사의 업무를 도우는 직원이 실시하였다. 그리고 H가족상담소에서도 대표 변호사가 상담 과정에서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원이 실시하였다. 질문지 실시 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였으며, 2년에 걸쳐 자료가 수집되었다.

갈등이 있는 부부나 이혼 의도가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문제 가정의 부부들을 위한 상담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표집대상자들의 질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내외였다.

수거된 질문지에 대한 응답의 성실성을 연구자가 검토하였다. 응답을 여러 문항 빠뜨린

질문지는 불성실한 자료로 간주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자료 정리과정을 거쳐 성실한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를 입력하였고, 변인별 신뢰도가 검토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에 대해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은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효능감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남자 집단

남자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변인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부부갈등의 정도는 중간보다 매우 낮았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다. 부부관계효능감과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이는 편이었고, 이혼의도는 매우 낮았다.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 남자 집단

	<i>M (sd)</i>	①	②	③	④	⑤
① 부부갈등	1.73 (.99)	1.00				
② 부모역할	4.16 (.90)	-.16	1.00			
③ 부부관계효능감	3.65 (.78)	-.70***	.17	1.00		
④ 스트레스대처효능감	3.35 (.69)	-.41***	.14	.61***	1.00	
⑤ 이혼의도	1.86 (1.11)	.72***	-.14	-.61***	-.32**	1.00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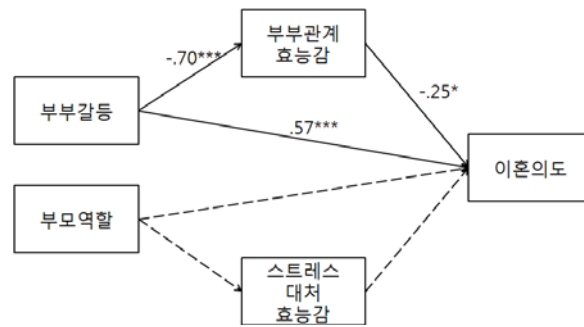


그림 2. 검증모형: 남자 집단

표 3. 효과분석: 남자 집단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부부갈등	→ 부부관계효능감	-.70***	-	-.70***
	→ 이혼의도	.57***	.18*	.75***
부모역할	→ 스트레스대처효능감	.14	-	.14
	→ 이혼의도	-.01	.01	.00
부부관계효능감	→ 이혼의도	-.25*	-	-.25*
스트레스대처효능감	→ 이혼의도	.07	-	.07

* $p < .05$, *** $p < .001$

변인간의 상호상관을 보면, 이혼의도는 부부갈등과 $r=.72$ 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부부관계효능감과는 $r=-.61$ 의 매우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역할 및 스트레스대처효능감도 이혼의도와 관계의 방향이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부부관계효능감보다는 부적 상관의 정도가 낮았다. 부부갈등이 이혼의도와는 정적 상관이었으나, 부부관계효능감과는 $r=-.70$ 의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부모역할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상관의 정도가 낮았다.

그림 2는 남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그림 1 참고)을 경로분석한 결과이다¹⁾. 부부

갈등에서 이혼의도로 연결되는 경로는 매우 높은 정적인 계수($P=.57$)를 나타냈으며, 부부갈등에서 부부관계효능감은 $P=-.70$ 의 매우 높은 부적 경로계수를, 부부관계효능감에서 이혼의도로는 부적 경로계수를 보였다.

한편 부모역할에서 이혼의도로 연결되는 경로나, 부모역할에서 스트레스대처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 및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서 이혼의도로 연결되는 경로 모두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남자 경우에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1) 이 연구의 경로분석에서 제시한 경로계수는 모두 표준화 경로계수임.

이혼의도가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부부갈등은 부부관계효능감을 감소시켜서, 이렇게 낮아진 부부관계효능감은 이혼의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갈등의 유의한 영향력에 비해, 부모역할은 이혼의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부모역할은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이 없고,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이혼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이 없으므로, 부모역할은 이혼의도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력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남자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분석을 한 결과이다. 부부갈등의 이혼의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접효과가 .57이고 부부관계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18로서, 전체효과는 .75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효과 크기는 부부갈등에서 부부관계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의 효과크기 -.70보다 더 컸다. 부부갈등의 이혼의도에 대한 전체효과(.75) 크기는, 부부관계효능감의 이혼의도에 대한 전체효과(-.25) 크기의 3배였다.

부모역할이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14로 정적인 값을 보였으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역할의 이혼의도에 대한 직접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남자 집단에 대한 경로분석(그림 2 참고) 결과와 마찬가지로 효과분석한 결과도 부모역할 및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이혼의도에 의미있는 영향이 없었다.

2.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효능감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자 집단

표 4는 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이다. 측정변인들의 평균값을 보면, 부부갈등의 정도는 중간보다 매우 낮았다. 부모역할 변인은 극히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부부관계효능감과 스트레스대처효능감 모두 중간 정도의 값을 보였고, 이혼의도는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변인간의 상호상관을 보면, 이혼의도는 부부갈등과 $r = .72$ 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부부관계효능감과는 $r = -.51$ 의 매우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역할 및 스트레스대처효능감도 이혼의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부부관계효능감보다는 부적 상관계수의 강도가 낮

표 4.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 여자 집단

	<i>M (sd)</i>	①	②	③	④	⑤
① 부부갈등	1.87 (1.10)	1.00				
② 부모역할	4.08 (.76)	-.03	1.00			
③ 부부관계효능감	3.32 (.72)	-.46***	.08	1.00		
④ 스트레스대처효능감	2.93 (.69)	-.11	.15*	.49***	1.00	
⑤ 이혼의도	2.49 (1.32)	.72***	-.14	-.51***	-.24***	1.00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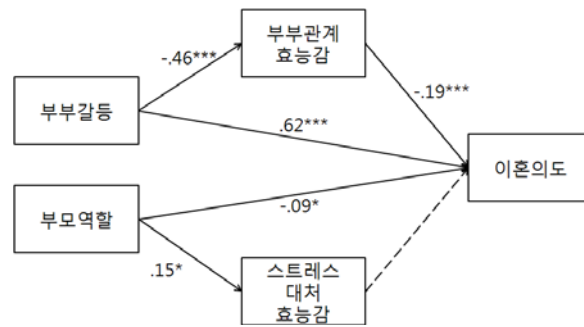


그림 3. 검증모형: 여자 집단

표 5. 효과분석: 여자 집단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부부갈등	→ 부부관계효능감	-.46***	-	-.46***
	→ 이혼의도	.63*** ¹⁾	.09*	.71***
부모역할	→ 스트레스대처효능감	.15*	-	.15*
	→ 이혼의도	-.09*	-.01	-.10*
부부관계효능감	→ 이혼의도	-.19***	-	-.19***
스트레스대처효능감	→ 이혼의도	-.06	-	-.06

* $p < .05$, *** $p < .001$

1) 부부갈등 → 이혼의도 직접효과가 .625임.

았다. 부부갈등은 부부관계효능감과 높은 부적 상관($r = -.46$)을 나타내었다. 한편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부모역할과 낮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림 3은 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그림 1 참고)을 경로분석한 결과이다. 부부갈등에서 이혼의도로 연결되는 경로는 $P = .62$ 로써 매우 높은 정적인 값을 보였다. 부부갈등에서 부부관계효능감으로 연결된 경로는 부적인 경로계수를($P = -.46$), 부부관계효능감에서 이혼의도로 연결된 경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값의 부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한편 부모역할에서 이혼의도로 연결되는 경

로계수는 경로모형에서 가장 낮은 경로계수를 보였으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부모역할에서 스트레스대처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부모역할에서 이혼의도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보다 계수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며,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고, 여전히 $p < .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서 이혼의도로 연결되는 경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자 경우에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이혼의도가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부부갈등은 부부관계효능감을 감소시켜서, 낮아진 부부관계효능감이 이혼의도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인들간의 역동은 남자 집단과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집단과 달리 여자 집단에서, 부모역할은 이혼의도에 대해 유의한 부적 영향이 있었으며, 동시에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 대해서도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었다. 즉 남자 집단에서는 이혼의도에 대해 부부갈등만 영향력이 있고 부모역할은 영향력이 없었다. 여자 집단에서는 부부갈등이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는 남자 집단과 마찬가지로이지만, 남자 집단과 달리 부모역할도 이혼의도에 의미있는 영향력이 있었고,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분석을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갈등의 이혼의도에 대한 전체효과는 .71로 매우 높았는데, 이를 분해해 보면 직접효과가 .63, 간접효과가 .09로서, 대부분이 직접효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접효과도 $p < .05$ 수준에서 유의함으로써, 부부관계효능감이 의미있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이혼의도에 대한 전체효과는 .71인데, 부부관계효능감의 이혼의도에 대한 전체효과는 -.19로 나타남으로써, 부부관계효능감에 비해 부부갈등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전체효과 크기는 3.5배 정도 되었다. 부부관계효능감의 이혼의도에 대한 전체효과도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부모역할이 이혼의도에 대한 전체효과는 -.10으로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효과를 분해해 보면 직접효과는 -.09로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간접효과는 -.01로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직접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남으로써,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하게 인식할수록 이혼에 대한 생각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의미있게 증진시켰다. 그러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의 이혼의도에 대한 직접효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높은 부모역할인식이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증진시켰으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높다고 해서 이혼의도가 감소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효능감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 기혼남녀의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과 부모역할,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매개작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부부갈등, 부모역할 및 자기효능감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자 집단의 경우에 부부갈등은 이혼의도에 대해 정적인 영향이 크고, 부부관계효능감에 대해 부적인 영향이 컸다. 부부관계효능감은 이혼의도에 대해 부적인 영향이 있었다. 반면에 부모역할은 이혼의도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이 없었다. 여자 집단의 경우에, 남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부부갈등이 이혼의도나 부부관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부부관계효능감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남자 집단과 달리, 부모역할이 이혼의도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스트레스대처효능감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남자는 여자들 모두,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고, 낮아진 부부관계효능감이 이혼의도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와 달리,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이혼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토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남자와 여자는 이혼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역동에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 남자는 그러한 부부관계가 이혼의도로 연결되고, 이혼 결정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의미있게 고려되지 않았다(그림 2 참고). 그러나 여자는 부부갈등이 심각하여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이 의미있게 고려됨으로써, 남자와 차이가 있었다(그림 3 참고). 즉 남자는 부부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로 작용하였으나, 부모자녀관계가 이혼의도를 감소시키는 완충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자는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고려하게 되어도,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라는 끈끈한 모자관계가 이혼의도를 의미있게 감소시켰다. 그러므로 여자는 부부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도 부부관계에만 초점을 두어 이

혼을 결정하지는 않고, 자식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남자와 달랐다. 즉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커도 자녀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작용하였다.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이러한 부부갈등이 이혼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했다. 결국 갈등적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과정에서, 부자관계보다는 모자관계가 더 강력하게 이혼을 제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인식을 더 강하게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최상진, 김은미와 차영란(2006)이 지적인 한국인의 부모로서 부부관계, 남자보다 여자 집단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덕웅과 김금미(2003)가 한국문화를 특징짓는 가치 20가지를 정리하였을 때, 여자집단에서는 자녀부양이 중요하게 포함된 반면에, 남자집단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경혜, 김주현과 강혜원(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한 성인들 중에 여자가 남자보다 자식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려웠음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경성(2001)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달리 이혼계획과정에서 가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희정(2009)은 최근 10여년 동안 국내의 애착 연구들에 나타난 부모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버지 개입의 중요성 및 공동육아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의 경로분석에서 여자는 부부갈등이 있어도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이혼의도를 감소시켰지만, 남자는 부모역할인식이 의미있는 영향이 없었고 부부관계 갈등이 이혼의도를 결정하였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아내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앞으로 부모역할 프로그램을 여자(박순옥, 신현균, 2009)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로서 공동의 책임과 역할인식을 고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부간의 갈등이 이혼의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부부갈등에 비해 부모역할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자의 이혼의도는 부부갈등의 영향을 받았으나 부모역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물론 여자는 남자와 달리,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이혼의도를 의미있게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부부갈등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효과크기에 비해 1/7 정도에 불과하였다(표 5 참고).

이와같이 여자집단에서 부모역할인식이 부부갈등에 비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지만, 만약 현재 70~80대 할머니들이 성인이었을 때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모역할인식의 영향이 이와 같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와 동일하게 설계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현재 할머니 집단은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에 더욱 애착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한국사회에서 지금과 같이 이혼율이 높지 않았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보다 과거에 반드시 부부갈등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부부중심의 관계보다는 자녀중심의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혈연으로 이어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강한 애착은 부부간의 웬만한 갈등상황도 참고 견디며 살게 하는 기반이었다. 이제 한국의 성인들은 그러한 부모자녀관계 중심의 부부보다는 부부관계 자체에 무게 중심을 이동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옥분과 정순화(2007)도 부모로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여 부모가 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여성취업률의 증대와 이혼율의 증가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부모역할에 대해 과거처럼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고, 부모역할을 필수적이라기보다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옥분과 정순화(2007)의 설명은, 이 연구에서 부부갈등에 비해 부모역할인식이 이혼의도에 대해 영향력이 훨씬 적은 결과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풍토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높은 부부관계효능감은 이혼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이혼의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도 있었고, 또한 부부갈등과 이혼의도 사이에서 간접적인 영향도 있었다. 이와같은 부부관계효능감의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으로서의 간접효과는 남자집

단(표 3 참고)과 여자집단(표 5 참고)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차이와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박영신, 김의철, 박영균, 2010).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갈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준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들(장수지, 2010; 한혜영, 현명호, 2006)도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자기효능감의 효과는 부부갈등상담과 이혼상담에서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혼위기 부부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누적되어 왔다(김만권, 오진미, 2006; 박성주, 박재황, 2011). 앞으로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부부관계효능감을 증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혼위기 부부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 부부관계효능감을 증진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투입은 상담의 실제적인 상담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남자나 여자집단 모두 부부관계효능감은 이혼의도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부관계를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효능적 신념과 기술은 이혼의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부관계효능감의 증진은 이혼위기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효능감이 이혼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이혼이 아니라 이혼의도를 측정하여 종속변인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부보다는 이혼의지가 있는 부부들이 실제로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혼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혼의도가 이혼실행과 동일 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이혼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며, 실제로 이혼을 한 사람들의 심리에까지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표집대상의 면에서 남자의 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법률상담소에 이혼상담을 하러 온 성인들 중에 여자가 많았기 때문에 표집과정에서 성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남자와 관련된 경로분석 결과는, 남자 집단을 더욱 충분히 표집하여 재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부모역할’이었기 때문에, 분석대상 자녀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등 자녀관련 특성을 고려한 결과 분석이 추가되었으면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한 자녀관련 특성에 대한 측정이 결여된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제작하여 측정한 변인들, 예컨대 부부갈등 척도, 부모역할 척도, 이혼의도 척도들의 경우에 신뢰도는 확인이 되었으나 타당도 확인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변인들을 활

용한 연구 결과의 누적을 통해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누적되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토대하여 앞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이혼의도라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종속변인으로 다루었는데, 가정생활만족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경로모형에 동시적으로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30~50대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의도에 대한 부부갈등과 부모역할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혼의도만이 아니라 그와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닌 가정생활만족도가, 하나의 연구모형 속에서 동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하나의 자극과 상황 속에 놓여지기보다 여러 자극과 상황 속에서 선택적으로 반응하거나 여러 자극과 상황이 동시적으로 조합되어 통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가정생활의 만족을 유지 증진시키는 경우와,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면,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만족한 가정생활을 돕는 하나의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모형은 다양한 동시다발적 상황과 현실에 보다 유사하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긍정적이거나 완전히 부정적인 극단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혼이라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와 가정생활만족이라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결과가 현실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변인들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해 본다면 더욱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모형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형에 부부갈등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지원도 포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지원의 중요성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8).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 변인을 다루었으나, 한국 부부의 부부갈등을 야기하는 핵심문제들이 무엇인지, 부부갈등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기초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박영신과 안귀옥(2009)은 부부갈등의 요소들을 정리한 바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이혼의도에 대해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부갈등의 요인들을 정교하게 분류하여 다양한 갈등요인들 중에 이혼의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의 속성이 무엇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모든 갈등의 요인들이 동일하게 이혼의도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혼의도와 관련된 부부갈등 변인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대집단별로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역동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자집단의 모자관계와 관련된 강한 유대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30~50대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70~80대 할머니 집단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인식이 이혼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 30~50대 여성들과 그 영향력의 정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세대집단별로 차이가 밝혀진다면, 1970~1980년대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된 우리 사회의 이혼율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공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할머니 세대는 대부분이 전업주부로서 남편과 자녀가 자기 삶의 전부를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 대리성취를 느껴 왔다면, 현재 기혼의 여자 성인 세대는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적 성취를 추구하는 경우도 많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과거 할머니 세대와는 다른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있다. 할머니와 여자 성인 세대집단간의 이혼의도와 관련된 부모역할인식의 차이를 규명해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가치의 단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맺음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비율이 23.8%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1990년 5.2%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이혼가구 증가 사회적 문제,

2011. 7. 11).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평균 이혼연령도 남자 45세, 여자 41.1세로 2000년(남자 40.1세, 여자 36.5세)에 비해 훨씬 상승(통계청, 2011. 4. 19)하였다. 이렇게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참고 살기보다는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지만,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자녀가 결혼한 후 이혼하겠다는 부부가 많기 때문이다(이혼가구 증가 사회적 문제, 2011. 7. 11). 이러한 이유에서의 황혼이혼 현상은 한국 성인들의 변화하는 가족가치인식과 더불어, 아직도 변화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부모로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부부갈등 및 부모역할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토착적 부부관계가 시사되었다. 최상진, 김은미와 차영란(2006)은 이혼 현상과 이혼에 관련된 사고가 사회문화적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이혼사유는 담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문화적, 사회심리적 과정이고 구성인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부모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이혼의도를 감소시킨 결과는, 한국인의 부모로서 부부관계 측면을 경험과학적으로 밝혀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인의 토착적 부부관계를 심도있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부부관계는 서양인 부부관계와는 다른 사회문화적인 속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호의존적 부부관계와 부모로서의 부부관계(최상진, 김은미, 차영란, 2006)와 같은 개념적 속성들은, 한국 부부관계의 토착적 특징을 잘 나타내어 준다.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와 관심을

부부갈등과 이혼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부가 갈등상황에서도 이혼하지 않는 이유 등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인식과 같은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강한 유대관계와 고유한 심리특성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특히 여자집단 경우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이혼의도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가, 그동안 한국 가정과 사회를 지켜온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힘들다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간다면, 그 붕괴되는 가정의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것이며, 이 사회가 건전하고 안정되게 발전하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과거 전통사회에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남편과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녀들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한이 맺히도록 참고 살며 일방적인 희생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행복의 길들이 다양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의식들도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여자집단이라 할지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책임감은, 부부갈등이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1/7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다.

한국 기혼여성의 가정내 역할인식 및 자아실현에 관련된 사회적 표상들은, 한국 사람들의 가족과 자녀와 가정에 대한 가치인식, 성

취와 행복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적 담론들과 결부되어 있다. 한국 어머니의 토착적 모성애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 가치의 방향성과 함께 맞물리며, 거대한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참고문헌

- 김만권, 오진미 (2006). 이혼 전 부부상담을 위한 단기 상담모델 구안.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20-21.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은정, 김유진, 김영아, 문수중, 오경자 (2009). 자녀연령대별 부모역할행동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118-119.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의철, 박영신, 김경자 (2011). 청소년과 부모의 미래성취의식: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과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5), 29-60.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진숙, 권석만 (2010). 부부갈등 사례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337-348.
- 나중혜 (2005).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 제안: 변화하는 부모역할 개념과 수행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411-421.
- 박성주, 박재황 (2011).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47-73.
- 박순옥, 신현균 (2009). 심리건강 향상에 초점을 둔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중도, 중복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존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29-345.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11).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박영신, 김의철, 박영균 (2010).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는가?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33-5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영신, 안귀옥 (2009).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관련 변인 분석: 부부관계,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가족해체 및 가정생활만족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pp.113-114. 10월 31일. 한남대학교.
- 방희정 (2009).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67-91.
- 유정이, 금명자, 이지은, 이호준, 김수리 (2006). 이혼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부모의 경험과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57-176.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종숙 (1998).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한 심리사회적, 발달적 이해. *인간발달연구*, 5(1), 161-184.
- 이혼가구 증가 사회적 문제 (2011. 7. 11). 충청일보. http://n.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22243§ion=sc9.
- 임정하, 윤정진 (2010).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인간발달연구*, 17(1), 263-284.
- 임춘희 (2011). 다자녀가족 부부와 개인의 다자녀가족 강점지각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19-64.
- 장수지 (2009).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으로 본

- 부부유형에 따른 부부관계의 질: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33-151.
- 장수지 (2010).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효능감의 매개효과 검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23.
- 장화순, 방은령 (2007). 문헌자료를 통해 본 가족해체의 발생원인과 유형: 190~2006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508-509.
- 정순택 (2011). 포항지역 보호관찰청소년들의 비행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4), 67-91.
- 정옥분, 정순화 (2007).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채규만 (1998).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치료적 접근방법. 인간발달연구, 5(1), 190-206.
- 최상진, 김은미, 차영란 (2006). 이혼 사유의 사회적 구성: 사회적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227-244.
- 최혜경, 안정신 (1999). 이혼이 여성의 친밀감과 생성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6(1), 123-138.
- 통계청 (2010). 연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통계청 (2010. 4. 21). 2009년 이혼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 (2011. 4. 19).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 한경혜 (1998). 이혼 후 재혼가정의 부모-자녀 적응. 인간발달연구, 5(1), 234-251.
-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4). 성인 남녀의 이혼과정 각 단계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93-118.
- 한덕웅, 김금미 (2003). 성별에 따른 한국문화와 공동사회가치 인식의 합치와 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75-376.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952.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2000). *The parental efficacy scale*. Unpublished research instrument.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radbury, T. N. (1989). *Cognition, emotion, and interaction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riag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Olson, D. H., & DeFrain, J. (2006). *Marriages and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N. Y.: The McGraw-Hill.

1 차원고접수 : 2012. 2. 10
수정원고접수 : 2012. 5. 2
최종게재결정 : 2012. 5. 31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Parental Roles, and Self-Efficacy on Married Men and Women's Intentions Related to Divorce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Gwi-Ok An

Hwaon Lawyer's off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parental roles, and self-efficacy on married men and women's intentions regarding divorce.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82 middle-aged adults(husbands 71, wives 211).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was as follows: Husbands indicated that marital conflict positively influenced intentions regarding divorce and negatively influenced the efficacy of the spousal relationship. Moreover the efficacy of the spousal relationship negatively influenced intentions regarding divorce. On the other hand, parental roles did not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tentions regarding divorce and stress coping efficacy. In the case of wives,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and the efficacy of the spousal relationship on intentions regarding divorce were significant. However, in contrast to husbands, parental roles revealed an negative influence on intentions regarding divorce, and a positive influence on stress coping efficacy. This suggests that in the case of both husbands and wives, marital conflict and weekend spousal relationship efficacy strengthened intentions regarding divorce. Especially in the case of wives, in contrast to husbands, parent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regarding children enhanced stress coping efficacy and decreased intentions regarding divorce.

Key words : marital conflict, parental roles, self-efficacy, intentions regarding divorce